

산자수명(山紫水明)한 괴산의 향기

강 욱
자유기고가

충청북도의 땅 생김새는 크게 보아 그믐달 꼴의 모양이다. 괴산군은 그 그믐달의 오목한 쪽에서 한가운데를 차지한다. 그런 까닭에 이곳 사람들은 괴산군을 ‘충청북도의 한가운데’라고들 표현한다.

괴산(槐山)은 옛부터 충·효·예를 으뜸으로 삼아 충신, 효자, 열녀가 많기로 이름난 인걸의 고장이다. 또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다양한 문화유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괴산군은 아직도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아 좋은 자연환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그런 만큼 거기에 어울려 사는 사람들의 인심도 예스럽고 순수하다.

험준한 소백산맥이 군의 동남쪽으로 솟아 경상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가로막고 있어서 한 때는 충청북도에서 가장 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괴산군은 아직은 ‘충청도 양반’의 전통이 꽤 한갓

지게 남아 있는 곳이라 할 수 있다. 이 전통은 이곳의 많은 옛 서원이나 사당들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해오는 민간신앙이나 사람들의 마음가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단양군과 충주시의 뒤를 이어 소백산맥의 서쪽 비탈에 자리잡고 있는 괴산군은 좁은 골짜기의 평야가 드문드문 형성되어 있을 뿐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있다. 그래서 산지가 많고 평야가 적은 괴산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풍부한 수자원 등 빼어난 경관이 자연발생적으로 풍부한 관광조건을 갖추게 된 것이다. 괴산이 교통이 나빴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1988년에 완공된 중부고속도로가 이 군을 지나게 됨으로써 예전과는 달리 교통이 훨씬 좋아졌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도로가 건설되고 있다.

화양동 구곡은 괴산의 대표적인 명승지로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화양동의 골짜기는 이중환이 「택리

지」에 “금강산 남쪽에서는 으뜸가는 산수”라고 했듯이 예로부터 경치 좋기로 이름난 곳이다. 청천면의 화양리에서 송면리 쪽으로 화양천의 물줄기를 끼고 십리쯤에 걸쳐 깃들여 있는 이 골짜기는 모두 아홉 군데의 빼어난 경치가 있어 화양동 구곡이라고 부르는데, 단양팔경과 마찬가지로 곳곳에 옛 사람들이 새긴 글씨가 남아 있어 이곳의 깊은 내력을 말해준다.

화양동의 골짜기는 물과 숲이 어우러져 있는 바위의 생김새가 두드러지는 경치이다. 넓게 펼쳐진 반석위로 맑은 물이 흐르고 주변의 울창한 숲이 장관을 이룬다. 또한 인조~숙종 때에 좌의정을 지낸 대학자 우암 송시열이 산수를 사랑하며 은거한 곳으로 그와 관련된 유적이 많다. 송시열의 글씨는 이곳의 구곡 중에 제1곡과 제4곡, 제5곡에 있다.

구곡 중에서 물이 두드러지는 곳은, 그 물에 그림자가 맑게 비친다는 제2곡 운영담과, 맑은 물에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는 제4곡 금사담의 두 곳뿐이며 나머지는 바위의 절묘한 경치이다. 즉 바위가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 하다는 제1곡 경천벽, 송시열이 효종 임금의 죽음을 슬퍼해서 올라가 울었다는 제3곡 읍궁암, 마치 별을 관측하는 곳 같다는 우뚝한 제5곡 침성대, 구름이 드리울 만하다는 제6곡 청운대, 꿈틀거리는 용을 닮았다는 제7곡 와룡암, 옛 날에 푸른 학이 살았다는 제8곡 학소대, 그리고 개울 한 복판에 흰 바위가 티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제9곡 파천이 모두 바위를 일컫는 경치이다.

선유동 구곡은 화양동 구곡으로부터 화양천을 좀더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자리잡고 있다.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 퇴계 이황이 7송정(현 송면리 송정부락)에 있는 함평 이씨택을 찾아갔다가 산과 물, 바위, 노송 등이 잘 어우러진 절묘한 경치에 반하여 아홉 달을 돌아다니며 구곡의 이름을 지어 새겼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글자는 없어지고 산천만이 남아있다.

선유동 구곡도 화양동 구곡처럼 물과 숲이 어우러진 바위의 경치로서, 이름조차 1곡부터 9곡까지 차례로 선유동문, 경천벽, 학소암, 연단로, 와룡폭, 난가대, 기국암, 구암, 은선암이라고 불러 비슷한 점이 많다. 제6곡 난가대와 제7곡 기국암은 옛날에 신선들이 바둑을 두던 곳으로서 한 나무꾼이 난가대에 도끼를 세워 놓고 기국암에서 신선들이 두는 바둑을 구경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니 오랜 세월이 흘러 오대제의 자손이 자라고 있었다는 전설을 전해주는 곳이다.

이 밖에도 괴산에는 칠성면의 쌍곡 구곡이나 갈론 구곡, 괴산읍 제월리의 고산 구경, 청천면의 용추폭포, 연풍면의 수옥폭포처럼 깨끗하고 조용한 경승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괴강(槐江)은 괴산군을 좌우로 흐르는 강이다. 동으로는 월악산, 남으로는 속리산을 끼고 있는 강으로 괴산군의 젖줄이자 도처에 절경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다. 괴강은 화양동, 선유동, 쌍곡으로 흐르는 지류 이외에도 고산구경이 본류를 따라 흘러 그 절경을 뿜낸다. 상류의 청천, 용추폭포를 비롯하여 갈론계곡과 조령관문

에서 발원한 수옥폭포와 상천 등 수많은 비경을 이루고 계속 충주의 탄금대까지 흘러가 남한강을 만난다.

청천면 화양리에는 조선시대의 큰 유학자 송시열을 받들고 제사지내던 화양서원이 있었다. 이 화양서원은 거기에 딸린 만동묘로 더욱더 이름이 높던 곳이었다. 지금은 그 사실을 알려주는 비석만이 외롭게 서 있을 뿐이지만 17세기말에는 만동묘를 등에 업은 이 서원이 나라 안에서 가장 ‘힘’을 자랑하는 서원으로 군림했다. 화양서원은 훗날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없어졌다.

괴산의 문화적 품격은 연풍향교, 괴산향교, 청안향교 등에서도 깊이 느낄 수 있다. 그 밖에도 공림사, 각연사, 충민사, 정인지묘, 송시열묘, 청안사마소, 도명산 마애불 등 사찰과 각종 문화유산들이 풍성함을 더해준다. 또한 이곳에는 세계에서 1속 1종밖에 없다는 미선나무의 자생지가 세 군데나 있다. 장연면 송덕리와 추점리, 칠성면 울지리에서 자생하는 이 나무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이른봄 잎을 앞세워 꽃을 피우는데 열매의 모양이 마치 부채와 같다.

옛 선비들의 ‘한양 과거 길’로 나아가는 새도 쉬어간다는 문경새재, 곧 조령(鳥嶺)은 험난하기 짝이 없는 고개로 그 옛날 민초들의 삶과 애환이 점철된 곳으로 연풍면 원풍리에 있다. 충청북도 괴산 땅보다는 문경 땅에 걸쳐진 부분이 더 많아서 문경새재라고 부르는 이 고개는 경북 문경시와 경계를 이루고 조령삼관문이 있어 예부터 경상도와 충청도를 잇는 관문역할을 해왔다.

오늘에 와서 문경새재는 그 아래쪽의 이화령에 뚫린 차길 때문에 그다지 쓸모가 없게 되었지만, 예전에는 단양군의 죽령과 영동군의 추풍령과 함께 소백산맥을 넘나드는 세 고개 중에서도 첫손가락에 꼽히던 고개였다. 경상북도의 문경시와 이곳의 연풍면을 잇는 삼십리 고갯길은 충주로 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따라서 저 멀리 고구려 시대의 온달장군이나 조선시대의 신립장군도 이 고개에 진을 쳤듯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는 추풍령의 구실이 커짐과 함께 점차 잊혀져만 갔다. 그러던 것이 지난 70년대에 묻혀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개발한다는 뜻에 따라 이 길은 새롭게 단장되어 역사와 기억의 뒷전에서 되살아났다. 그러나 이 길은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고쳐진 길로 거기에 세워진 말끔한 관문 세 개도 그렇다. 그래서 한양으로 과거보러 가던 예전 사람들의 체취를 진정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괴산은 군 전체의 60%가 임야일 정도로 산지가 많아 농경지 중에서도 밭이 논보다 훨씬 넓다. 따라서 이곳 사람들은 밭작물인 보리, 밀, 수수 따위를 많이 가꾸어 먹는다. 이곳의 밭에서는 나라 안에서 으뜸으로 수확량을 내는 잎담배를 포함해서 고추, 인삼, 마늘, 오이, 감자, 팽이버섯, 송이버섯 같은 농특산물을 많이 재배해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 중에서도 괴산 청결고추는 담배와 더불어 괴산의 대표작물로 호평을 받으며 명성을 얻고 있다.

괴산에서 생산되는 청결고추는 이미 조선 초기부터 이 지역 제월리에서 재배하던 고추의 토종인 ‘쇠뿔고추’를 개량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괴산 청결고추는 껍질이 두껍고 씨앗이 적으며 선명한 진홍빛을 띠고 단맛과 매운맛이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괴산 청결고추가 특유의 맛과 향으로 명품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이 지역이 고추 생육에 관한 최적의 자연조건을 고루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즉 괴산은 해발 250m의 산간 청정지역으로 주야간 일교차가 크고 일조량이 많을 뿐 더러 화강암과 석회암이 주종을 이루는 사질토양으로 보수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자수명한 자연 속에서 청정수를 먹고 자란 괴산 청결고추는 충청북도 농산물 품평회에서 7년 연속 품질대상을 수상했으며, 일본 등 해외로 수출되어 호평을 받고 있다. 괴산군에서는 청결고추를 괴

산을 알리는 하나의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가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매년 가을 문화축제로 ‘괴산 청결고추 아가씨 선발대회’와 ‘괴산 청결고추 음식전시회’ 등을 열어 깨끗하고 청정한 괴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괴산의 향토음식 또한 여느 지방과는 달리 특색 있고 풍성하다. 청정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 특산물과 남한강의 발원지에서 직접 잡은 민물생선을 재료로 해 옛 맛과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갖가지 향토음식에서 푸근한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

괴강의 메기찜은 괴산의 대표 음식으로 메기, 쏘가리, 모래무지, 참마자 등을 넣은 매운탕이 진국이다. 올갱이국 역시 괴산의 별미로 유명하다.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올갱이와 된장, 부추, 아욱 등을 넣고 요리해 담백하고 칼칼한 맛을 내는 음식으로 소문났다. 🍲

